[UCI]I804:24011-200000237622

2009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서예 교육을 통한 주의집중력 향상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강 호 수

서예 교육을 통한 주의집중력 향상연구

-자폐아 단일대상 사례-

study of concentration improvement through calligraphy education : A case of a child with autism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강 호 수

서예 교육을 통한 주의집중력 향상연구

-자폐아 단일대상 사례-

지도교수 김 종 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강 호 수

강호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양 계 남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대 원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종 경 인

２００８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1
2. 연구 방법과 제한점.....3

제2장 이론적 배경

1. 서예활동의 개념.....4
2. 서예활동의 심미성과 정서적 집중력.....5
3. 자폐증의 개념과 원인 분석.....6
가. 자폐증의 개요와 원인.....6
(1) 개요와 교육방법.....6
(2) 자폐증의 초기와 원인.....8
나. 자폐증의 특징과 분류.....12
(1) 특징.....12
(2) 자폐증의 분류별 개념.....16
다. 자폐증의 역학과 자폐아 연령별 분석.....19
(1) 역학(疫學).....19
(2) 자폐아 연령별 특징.....20
라. 다른 자폐아 서예 교육 사례.....23

제3장 자폐아의 서예학습을 통한 임상 사례 프로그램

1. 연구사례 대상과 서예활동 프로그램.....26
가. 연구대상.....26

(1) 객관적 자료수집.....26
(2) 사정 (Assessment).....29
나. 서예활동 프로그램.....30

2. 서예 - 판본체.....35
가. 판본체란?.....35
(1) 판본체의 특징.....35
(2) 판본체와 궁체의 차이점.....35
나. 판본체법.....36
(1) 붓 잡는 방법.....36
(2) 팔의 자세 법.....36
(3) 재료용구 사용법.....36

3. 측정기준과 프로그램 세션의 계획.....37

4. 임상사례.....39
가. 기존 학습프로그램 학습실태 파악.....39
(1) 기존 학습프로그램 학습과정.....39
(2) 학습결과.....40
나. 대상자의 학습향상 목표 설정.....42
다. 서예활동 학습 프로그램.....43
(1) 서예활동 프로그램 학습과정.....43
(2) 학습결과.....47
라. 교육효과.....54

제4장 결론 및 제언.....55
<참고문헌>.....57

표 목 차

표 1. 자폐아와 정상아의 연령별 비교.....21
표 2. 아동기와 학령기의 자폐아와 정상아의 비교.....22
표 3. 서예활동 프로그램 표.....31
표 4. 기존학습 프로그램 참여도 파악 일정.....37
표 5. 서예활동 프로그램 일정.....38
표 6. 기존 프로그램 실시 계획표.....39
표 7. 기존 학습 프로그램 결과 표.....40
표 8. 서예활동 프로그램 계획표.....43
표 9. 서예활동 프로그램 학습 결과표.....47

그림 차례

그림 1 판본체와 궁체.....35
그림 2 사회성숙도 검사.....60
그림 3 간편 척도 검사(인물화 검사).....61

ABSTRACT

Study of concentration improvement through calligraphy education

a case of a child with autism

ho-su kang
Advisor : Prof. jong-kyoung kim Ph.D.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Many of the students who have low IQ, especially children with autism, have difficulty in studying and they also suffer from adjusting with other people.
Accroding DSM-IV, a tool for measuring of autism, children with autism usually have low IQ and they have abnormal communicative ability and their behavior is very limited.
These children have common with a mentally retarded child in many ways, but they have higher IQ than the mentally retarded child and they have lower ability to communicate.
So it seems very important to study these children and we should try to educate them with specially developed materials.
When we consider features of children with autism, education for them should include emotional cultivation with happiness and joy and also instruct way which can make children with autism get self-recognition through their self physical expressions.
With analysis that it will be a chance for children with autism who have difficulty of using languages and usually can't make any relationship with people to communicate and it will be good for improving own's power of concentration also it will be a chance for conforming relationship with people, we choose the calligrapher program which can be used for

education of children with autism.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importance of calligrapher and to develope it and to make various calligrapher programs of children with autism.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인간은 일반적으로 지능이 낮을수록 사회적 수용이 낮다. 정규학급에서의 자폐아는 고립되거나 거부되기 쉽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하기 때문이 아닌 호전성, 불결성 등에 기인되고 가정과 학교에서 반대되는 실패경험에 의해 인내도 및 욕구좌절이 낮고 일반아에 비해 비행과 문제행동이 많이 보이는 것은 그들이 사는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이며 환경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고립적인 자신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장애자들과 구별되어지는 자폐아 증가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1)]

일반적으로, DSM-IV(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미국정신의학 협회 발행 진단 통계 편람) 자폐성 장애 진단 기준에 의하면 자폐아는 낮은 인지 능력을 나타내며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현저히 비정상적이거나 활동의 관심과 종류와 발달 장애가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행동적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런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폐아들은 사회적 능력의 열등으로 인해 부적응 성향을 나타내고 자아 감각기관의 손상과 대인 관계에서 두드러진 결함이 많다는 점에서 정신지체아들과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자폐아들은 정신지체아들보다 인지능력의 IQ 수치는 높다는 점과 정상적인 언어로 대화가 어렵다는 점들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자폐아의 정신적, 신체적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파악해볼 때 그들의 교육은 즐거움과 흥미가 수반되는 정서적 측면의 유도 함양이 요구되며, 또한 자발적인 신체표현을 통한 자아 인식을 이끌 수 있는 지도방안이 현재사회에서 요구되어지고 있고 본인 역시 이들에게 필요한 흥미를 이끄는 것들에 대해 파악해보고 그것에 연계되는 교육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서예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학습행동 및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권식만 1991(~3p)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자폐아들의 증상이 거의 다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위와 같이 자폐아들의 증상이 거의 다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의 대상을 연구자 자신이 전공한 미술-서예분야 학습을 적용시킬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자폐아를 목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고 훗날의 통합교육을 시행 할 때 조금이나마 적용 될 수 있는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적용 되었을 때의 실태를 미리 파악 하고자 중등 자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시행 하였고 한글인지와 미술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자폐아 대상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차지 할 수도 있으나 단일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논문의 대상자를 분석해보면 기존프로그램 참여도를 관찰, 파악해 보았을 때는 에어로빅, 태권도, 요가 같은 동적인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였고 그것과는 반대로 셈하기 학습 같은 정적인 프로그램에는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본 논문 대상자의 사정 (Assessment)[2]을 파악해볼 때 덧셈, 뺄셈, 곱셈을 할 수 있고 한글을 말하고 쓸 수 있는 인지능력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타인의 지시를 늦게라도 인지하고 행동하는 정신적인 측면과 박스종이 같은 딱딱한 종이에 그래픽로고디자인 모방그리기를 좋아하는 미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측면과 한글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한글서예학습을 아이에게 적용시켜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아이의 부적응 행동 감소와 더불어 집중력 향상과 흥미유발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자폐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에 적절한 서예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 개발하고 그에 따른 더 다양한 자폐아의 서예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서예활동이 자폐아의 교육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사용이 어렵고, 대인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자폐아에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서예활동을 통해, 서예를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서의 방법적인 부분의 교류 즉, 학습자의 손과 지

2) 현재 평가

도자의 손이 맞닿아 배우며 서로의 간격이 가깝도록 하여 눈을 보고 얘기하며 굳이 언어가 아니어도 눈으로,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가 조금이나마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3)]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교육되는 서예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훗날 통합교육이 시행될 그때의 상황에 예비하여 미술치료가 아닌 미술교육 중 자폐아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적용한 것이다. 서예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서예활동교육이 어떠한 영향과 효과를 주는지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발달이 미흡한 자폐아들에게 서예활동이 올바르게 적용되었으면 한다.

2. 연구 방법과 제한점

본 논문은 서예활동을 자폐아 교육활동에 한 매개체로 적용하여 자폐아를 위한 서예활동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자폐아를 위한 서예교육 활동을 연구하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그 중 서예교육활동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서예교육활동의 개념을 제시하고, 서예활동과 인간과의 관계를 토대로 서예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자폐아와 서예활동에서는 자폐아에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고, 자폐아에게 서예활동이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되며, 교육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예활동 세션(Session)의 진행단계를 제시하였다.

위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한 임상사례 대상은 전남 순천 00특수학교에서 주 5회 교육받고 있는 교육가능 자폐아로서 개별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각 학습은 1일당 30분 내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제한점은 한 명이라는 단일대상 연구라는 것과 평소의 학교 교육과는 달리 30분 내내 맨투맨의 개별교육으로만 이루어진 교육을 시행하여 연구하였다는데 있다.

---

3) 서예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학습행동 및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권식만 1991(~3p)

본 논문은 서예활동과 자폐아에 관한 관계 문헌들을 토대로 한 이론적 문헌 연구 방법과 임상을 통한 사례 연구를 병용하여 진행하였다.[4]

제2장 이론적 배경

1. 서예활동의 개념

서(書)는 고래로 [대예(大藝)] (예(藝),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의 하나로서 인격 완성의 필수적 요소가 되어 누구나 식견을 갖추려면 인생을 통하여 수득(修得)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예술적이고 실용적인 점은 물론 이거니와 정신도치(精神陶治)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5]

서예는 우리문화의 근본이다. 글씨는 서(書), 서법(書法), 서도(書道), 서예(書藝)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들 중 글씨를 '서예'라 일컬으며 이 말의 한자풀이 그대로 '예술적인 글씨'를 말한다. 서예는 동양의 독특한 예술로서 그림과 같이 쳐서 서예일치를 주장하였고 나아가서는 동양미술의 원천은 '서(書)'에 있다하겠다.

서예를 중국에서는 서법(書法) 또는 서사(書史), 일본에서는 서도(書道) 라하고 한국에서는 서예(書藝)라 칭하게 되었다.

해방 후 서예라고 부르게 된 원의는 육예(六藝)[6]에서 서자(書字)와 예자(藝字)를 취한데 있다. [7]

서예는 동양의 민족 특유성을 띈 예술로서 고유와 인격을 도치할 수 있으며 서의 문화적 가치를 보더라도 문자가 지닌 독특한 구조 형태와 유덕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인간정신과 문자를 신비시하는 예술 심을 볼 때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그 독자성을 자랑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서는 동양예술의 미학적 기초와 예술창조의 보람과 가치를 확고히 해 주었다.

---

4) 음악치료를 통한 자폐아동의 반응연구-백승희1999(2~3p)
5) 김충현, 1963, p.319
6) 고대 중국 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이른다
7) 김기승, 1975, p920

8) 학교교육에서 서예교육은 개인의 품성과 인격의 도치(陶治)뿐 만 아니라 민족전통 예술의 전승 내지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서예를 이해하고 바르게 쓰며 분석하고 구성하여 미적 감각의 발달을 꾀하도록 하며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여 정신을 살찌게 하면 교육적인 면에서 서예교육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예활동의 심미성(審美性)과 정서적 집중력

실생활의 필요에서 생긴 글자가 실용에 머무르지 않는 하나의 예술로서 감상의 대상이 된다는 건 글자 그 자체의 구성요소가 다양함과 동시에 그것을 쓰는 주(主) 용구(用具)가 수필(手筆)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해서(楷書)[9]만 해도 여러 가지 형태의 획과 점으로 이루어져 간가[10], 결구[11]가 다양한 대다가 그것을 부드러운 붓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질감의 변화, 운필 속도의 가속으로 단순한 공간 구성에 그치지 않는 시간적 선법을 느끼게 한다. 그것이 행서(行書), 초서(草書)[12]에 이르면 해서(楷書)의 정적인 상태보다 더욱 입체적이고 리듬과 동적인 억양(抑揚)이 나타난다. 장단(長短), 대소(大小), 태세(太細), 곡직(曲直), 광협(廣狹), 경중(輕重), 강상(剛桑), 농담(濃淡), 지속(遲速), 윤갈(潤渴), 완급(緩急) 등의 이러한 다양한 변화가 통일성을 지녔을 때 비록 흰 종이 위의 검은 먹빛의 조형이지만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혹은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서양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자랑인 동양의 서가 지니는 심미성이 있는가 하면 기필, 행필, 수필, 점 하나를 찍고 획 하나를 긋는데도 진지한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모

---

8) 김수길, 1985, p8
9) 한자 글씨체의 하나. 예서에서 변한 것으로, 똑똑히 정자(正字)로 쓴다. 중국 후한의 왕차중(王次仲)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10) 글의 짜임새
11) 문장, 편지 따위의 끝을 맺는 글귀.
12) 십체(十體)의 하나. 필획을 가장 흘려 쓴 서체로서 획의 생략과 연결이 심하다. 전서(篆書), 예서(隸書)를 간략히 한 것으로 행서(行書)를 더 풀어 점획을 줄여 흘려 쓴 것인데, 초고(草稿) 따위에 쓴다.

르는 이것이 서를 즐기는 과정이며 그것과 더불어 서예의 정신성도 엿볼 수 있다.

먹을 가는 동안만큼은 눈을 감고 혹은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또는 쓰고자 하는 글귀를 음미해 보며, 문자의 포치[13]를 구상해 보기도 한다.

과학문명과 물질문화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정서가 메말라가고 인간성은 윤기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휴식이 중요하다. 육체적 휴식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휴식과 여유는 더욱 아쉬운 것이고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잠시나마 자신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작업은 바로 동중정(動中靜)의 정신수양이며 하얀 종이위에 자기 성정(性情)을 표현해 나감과 동시에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서예야 말로 고상한 취미활동인 것이다. 여기에 서예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3. 자폐증(自閉症)의 개념과 원인 분석

가. 자폐증의 개요와 원인

(1) 개요와 교육방법

자폐증의 주요 증상은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거나 발달이 저하되어 있고, 관심과 활동의 종류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장애의 표현은 개인의 발달수준, 연령, 생활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자폐증의 시작은 거의 3세 이전 유아기부터이다. 자폐증은 때론 초기유아자폐증(Early Infantile Autism), 캐너 증후근(Kanner`s syndrome), 소아자폐증 이라 불리워지기도 한다.[14]

최근 진단 기준이 되는 보고는 1943년 레오 캐너(Leo Kanner)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는데, 그는 “정서적 접촉의 자폐적 장애(Autistic disturbance of affective contact)" 라는 논문에서 ‘초기 유아기 자폐증(Early Infantile Autism)’이라는 진단

13) 넓게 늘어놓음
14)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이근후 공역(서울 : 하나의학사, 1997), pp. 97-98.

명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캐너는 생후 1년에 과도한 퇴행(退行)을 나타내는 11명의 아이들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는 유아기 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결핍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갖는 이 증후군의 다양한 특성들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재화 된 고립감(self- imposed isolation) 때문에 초기 유아기 자폐증은 후에 '초기 유아자폐증' 이라고 명명되었다.

과거에도 연구자들이 자폐적 또는 자폐적 경향을 띄는 아동의 사례에 대해 이미 설명했으나 캐너에 이르러서야 그 증후군이 진단적 실체로 간주되었다. 초기 유아자폐증을 서술하면서 캐너는 극단적 자폐적 고립감 이 외에 이 증후군에 대한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을 언급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대인관계의 형성 장애, 언어와 의사소통 장애, 동일성 유지 및 반복적 특이한 행동으로 대표된다. 또한 반향어(反響語)가 나타나기도 한다. 캐너는 자폐아동의 집단에서 가끔 뛰어난 소 근육 운동능력과 지적인 외모, 뛰어난 기계적 암기력과 같은 특수한 능력이 나타남을 발견했다.[15]

이러한 개요를 바탕으로 교육을 전개할 시 고려해야 할 방법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자발성 부족으로 자폐아동들은 우울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아동을 주체로 하는 운동은 즐거운 의욕이 생기게 하며 이와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심리적 해방감과 운동기능, 습득의 성취감과 결부되는 정서의 발달도 촉진시키는 일이 되므로 아동들의 즐거움과 자주성을 중시해야 한다.

둘째, 자폐아동들은 상대방과의 눈맞춤이 잘 되지 않으며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어서 아동의 실제 태도에 입각한 흥미에 근거를 둔 내용이나 과제를 준비하여, 그것이 달성되는 것에 의하여 아동에게 성취감이 주어지므로 주의집중 훈련에 중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들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지능이 낮고 운동능력이 뒤쳐지므로 동적인 활동을 매일 20~30분 계속해서 실시하여 변화있는 반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적활동, 정적활동을 균형있게 순환시킴으로서 적당한 주의를 끌 수가 있으며, 이것으로 인

15) 마리아 J. 펠러즈니 [자폐증] 이화여대 언어청각임상센터 역(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18~19.

해 시각적 감각을 키울 수가 있게 되므로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한 개인으로 태어나 개인 각자가 모두 타고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중시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 특히 아동과 아동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경우나 장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경쟁시키지 않고 개인 개인으로 보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폐아들의 교육은 집단이어도 그 속에서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는 지도량을 아동의 독특한 행동이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하나 아동의 반응에 좌우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능한 최소량으로 해야 하겠다.[16]

(2) 자폐증의 초기와 원인

현재까지도 자폐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40년 전에는 자폐증이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이러한 초기의 견해는 막대한 혼란을 야기 시켰다. 부모들은 자녀의 자폐증에 대해 잘 대처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이 자신들이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폐증을 가진 아동의 부모들은 대부분 다른 부모들 보다 못지않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현대의 의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자폐증을 일으킨 데에는 분명한 생물학적 원인이 있고 이것은 부모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비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겠다.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는 유전적인 요소나 임신 시, 바이러스 감염 출생 시에 문제 등이 있고 이러한 요인들 중 어떤 것이라도 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폐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인 원인들이 자폐증을 갖고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며 이것은 곧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다른 생물학적 요인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6) 운동교육 프로그램이 자폐아동 발달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인)-8p

1) 심인성(心因性)[17] 이론 (정신 분석학적 원인)

자폐 장애가 환경 특히 부모의 잘못된 자녀 양육방식이 Kanner(1943)의 초기 보고에서 자폐증의 원인으로 생각되었다. 이런 초기 연구는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첫째는, 이러한 개념이 자폐아 부모에게 방어 태도와 많은 죄의식을 갖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가끔 이런 견해 때문에 지원(services)준비가 지연됐고, 또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제공된 지원도 부적절한 것이었다.

셋째는, 부모 쪽에서의 정당화 될 수 있는 분노와 전문가 쪽에서의 방어 때문에 부모와 전문가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벌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자폐 아동 부모가 정상아동 부모와 성격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연구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러한 견해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속에 발표되는 연구들은 오히려 자폐아동 특성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결론 내었고, 부모의 개입이 자폐 아동 치료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1960년대에 실제로 정신분석가인 부르노 베틀렘(Bruno Bettelheim)은 부모로부터 아동을 끌어내는 것이 자폐아 치료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자폐증의 심인성 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 받지 못하고 있다. 그에 반면에 자폐증에 대하여 생물학적 이론은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증거에 의해 지지 받고 있는 실태다.[18]

2) 생물학적 이론 (신경학적 기능장애)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생물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발견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자폐의 원인에 관한 심리적 원인이라는 입장의 오류를 처음으로 지적한

17) 심인성: 어떤 병이나 증세(症勢)가 마음이나 정신환경(精神環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특성
18) Simon Baron, [자폐증의 진단과 치료] 강영심역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7), p. 44.

사람은 Rimland(1964)이다. 자폐증은 뇌에 하나 또는 몇 가지의 비정상적인 기능에 의해서 일어나며, 특히 유전자, 임신기간의 출생기의 장애 혹은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명 중 약 1명의 지체아는 기질성 뇌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인지, 언어 지각의 결함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뇌의 구조적 이상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기질적 뇌 기능 장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거나 기능적 이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rnitz와 Ritvo(1968)는 자폐 아동들은 신경학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부터 입력되는 자극과 그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지각적 비향상성 가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자극에 대한 지각문제는 아동의 내적 표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에 결함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이상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련 요인들

· 정신지체

· 간질

· 신경학적 증상

· 약간의 선천성 이형(異形)(출산 장애)

· 임신과 산고시 문제

· 염색체/유전적 장애

· 바이러스 감염

· 선천성 이형 증후군

이러한 근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폐증은 종종 신경학적 증상, 정신지체, 의학적 이상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는 비록 소수의 사례에만 확인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례에 있어서 약간의 생물학적인 원인이 자폐증 근저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② 의학적 이상

a. 유전적 이상(Genetic conditions)

· 취약성 X 증후군(Fragile X syndrome)

· 페닐케톤뇨증(Phenylketonuria)

· 결절성 경화증(Tuberous sclerosis)

· 신경섬유종(Neurofibromatosis)

· 기타 염색체 이상(Other chromosomal anomalies)

b. 바이러스 감염(Viral infestions)

· 선천성 풍진(Congenital rubella)

· 선천성 거세포 비루스(Congenital cytomegalovirus)

· 풍진 뇌염 (Herpes encephalitis)

c. 신진대사 이상(Matabolic conditions)

· 퓨린 합성의 이상(Abnormalities of purine synthesis)

· 함수 탄소 신진대사 이상(Abnormalities of carbohydrate metabolism)

d. 선천성 이형 증후군(Congenital anomaly syndromes)

· 코넬리아 드 랑즈 증후군(Cornelia de Lange syndrome)

· 누난 증후군(Noonan syndrome)

· 코핀 시리스 증후군(Cottin Siris syndrome)

· 윌리엄 증후군(William`s syndrome)

· 비들-바데트 증후군(Biedle-bardet syndrome)

· 뫼비우스 증후군(Moebius`s syndrome)

· 뢰베르 흑내장(Leber`s amaurosis)

자폐증을 가진 아동들에게서 발견되는 의학적 이상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뇌 손상이나 기능 장애와 연관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폐증을 가진 아동들이 이러한 특별한 의학적 이상을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실제 그런 의학적 이상을 가진 모든 아동들이 다 자폐증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19]

나. 자폐증의 특징과 분류

(1) 특징

자폐증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폐아동의 주요특징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것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이 된다. 자폐증은 한마디로 행동문제 증후로 표현되며 이 행동문제들이 지닌 특성들은 다시 다음 갈래로 세분화되어진다.

1) 사회적 상호 작용의 장애

① 타인의 존재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결함

② 부적절한 감정 표현

③ 모방 장애

④ 사회적 놀이의 부적절성

⑤ 친구를 사귀는 능력의 결함

⑥ 사람을 사물처럼 대함[20]

19) *Ibid.*, pp.44~45

20) 이상복 공저, [정서·행동장애아 치료와 교육] , pp. 294~296.

2)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

대부분의 자폐아동은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자폐아동의 50% 정도는 전혀 기능적인 말을 발달시키지 못하며, 말을 할 줄 아는 아동도 정상아동 혹은 다른 언어장애 아동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말을 한다.[21]

①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

a. 말의 생산에 있어서의 이상(음량·높이·강약·속도·억양)
b. 반향어
c. 대명사 반전
d. 적절한 말이라도 대화 능력의 장애
e. 뜻 모를 말
f. 특정 주제에 몰입 혹은 과다한 질문
g. 심한 경우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아기 소리를 내거나 괴성을 지름
h. 혼잣말

② 비언어적 의사 소통의 문제

a. 옹알이·표정·몸짓·흉내·주어의 결함
b.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시작인 눈맞춤의 결함
c. 원하는 것을 가리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끔[22]

21) 이상복 공저, [정서·행동장애아 치료와 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8), pp. 292~294.
22) 김일권, [유아장애와 치료교육] (안양: 한국특수교육연구소 출판부, 1997). pp.79~81.

3) 의례적(ritualistic) 행동과 동일성의 고집(제한된 활동)

① 의례적 습관적 행동(Rutter, 1978)

a. 한정되고 고정적인 놀이형태
b. 특정 사물에 대한 애착
c. 숫자·기하학적 도형·연속적인 무늬·색깔에 대한 몰두
d. 환경 변화에 대한 저항

② 그밖에

a. 틀에 박힌 신체 활동
b. 부적절한 물체사용
c. 변화에 대한 수용이 어려움
d. 활동수준의 부 적절성(과다활동/극소 활동)

4) 감각 사용과 감각 반응의 부적절함

① 시각 사용과 반응의 부 적절성
② 청각 사용과 반응의 부 적절성[23]
③ 미각 및 촉각, 후각 사용과 반응 부적절성

23) 이상복 공저, [정서·행동장애아 치료와 교육] , pp. 294~296.

5) 자기자극과 자해행동

① 자기자극 행동

a. 반복적으로 자기 눈앞에서 손을 흔들기
b. 리듬감 있게 반복적으로 상반신을 흔들기
c. 원 주위나 벽을 따라 돌거나 갑자기 일어서기
d. 그밖에 - 발끝으로 걷기, 머리 돌리기, 머리 부딪치기, 빛 응시하기, 질감 있는 돌이나 벽 등에 손 문지르기

② 자해행동

이 행동은 자신의 몸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약한 경도에서 생명이 위협될 정도의 심한 경우까지 다양하다.

a. 머리 부딪치기
b. 자신의 손이나 손목 물어뜯기
c. 그 밖에 - 팔꿈치 또는 무릎 부딪치기, 머리카락 당기기, 얼굴 문지르기, 자신의 얼굴 · 옆구리 때리기 등

6) 지적 기능 수준

대략 이들 중 60%가 IQ 50 이하로, 20%가 50-70 사이, 20%가 70 또는 그 이상이라 추정한다. 이처럼 대부분 자폐아동들은 정신지체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들 중 상당수 아동들은 동작성 영역, 기계적, 수리적 능력에 뛰어난 능숙함을 나타낸다. 특별한 경우 미술, 음악, 숫자 등의 특이한 재능을 지닐 수 있다.

7) 부적절한 감정 표현

① 공포증 및 신경 과민성
② 빛 또는 냄새에 대한 과장 반응
③ 부적절한 감정표현(과도/무관심)
④ 정서 표현의 부재
⑤ 이유없는 웃음[24)]

8) 기 타

① 일부 음식만 먹는 제한된 식사
② 수면 장애(몸을 흔들면서 깸)

(2) 자폐증의 분류별 개념

초기 자폐증에 대한 연구는 정신분열증의 하위군으로 간주하다가 인지능력의 정신지체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부적절하고 특이한 언어의 사용이나, 이 아동들이 좋은 인지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일반적인 인상 때문에 자폐적 증상은 다른 정신적 장애나 지체로부터 구분되게 되었다.
최근에는 자폐증을 두 개의 방법으로 분류한다.
대부분 정신과에서는 자폐아를 아동기 정신병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생겨서 인지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환경에 적응 못하는 발달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경우이다.
정신병은 그 원인을 알기가 어렵다. 기질적 손상이나 기능장애의 결과로써도 일어날 수 있다. 정신병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데에 크게 현실 지각능력이 떨어지고 적응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신기능을

24) 이상복 공저, [정서·행동장애아 치료와 교육] , pp. 294~296.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폐증은 발달장애로써 분류되기도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자폐증의 원인이 기질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가들은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인지장애를 일으켜서 자폐아가 정상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는 데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장애는 발달 장애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현명한 자폐증의 분류방법은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제한된 기능적 분류를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4가지 측면으로 첫째는 임상적 증세, 둘째는 지적 능력, 셋째는 생물학적 요소, 넷째는 심리 사회적 요소로 나누고 있다.[25] 이 4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자폐증을 진단,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자폐아의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어떤 분류로 진단되는가에 따라서 유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자폐아가 "정신병적"이라고 분류되면 정서장애 프로그램도 배치되고 발달장애로 분류되면 발달장애 프로그램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확실한 다음과 같은 진단이 중요하다.

1) DSM-IV의 자폐 장애 진단규준(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DSM-IV에서 밝히고 있는 자폐성 장애의 필수 증상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거나 발달이 장애되어 있고 활동과 관심의 종류가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개인은 행동이나 관심,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자폐 장애의 진단을 위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준거는 미국 정신 의학회에서 출판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DSM-IV)에 제시된 준거이다.

25) Rutter, 1972

2) ICD(국제질병분류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10:

소아기 자폐증(childhood autism)은 발달 장애 및 비정상적인 발달과 사회적 상호교류, 의사소통 그리고 제약되고 상동적이며 반복적인 형태의 새 영역에서 특징적 유형의 이상기능으로 정의되는 광범위성 발달장애이다.
진단지침으로는 이상 증상이 3세 이전에 분명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아기 자폐증은 사회적 상호교류의 질적인 장애가 항상 있으며 운동 기능상에 상동성이 흔히 있고 대상의 비효용적 측면에 흥미를 가지는 일이 흔하며 일상의 일이나 개인적 환경의 사소한 변화에도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두려움, 공포증, 수면 및 분노발작, 공격, 자해 등과 같은 기타의 일반적인 일련의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3) ASIEP(자폐 아동교육진단검사: Autism Screening Instrument for Educational Planning)

ASIEP는 1978년 Krug, Arick, 그리고 Almond가 18개월에서 35세 이하의 자폐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하여 특수교육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 오던 ABC(자폐행동검목표: Autism Behavior Checklist)를 1993년에 개정한 것이다.
ASIEP는 기존의 ABC가 단순히 자폐 아동을 선별하는 것에 그쳤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위 검사 영역을 개발하여 자폐 아동의 진단 뿐 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즉 자폐행동 체크리스트, 음성행위 표집, 상호작용 사정, 교육적 사정, 학습 률 예후 등의 다섯 가지 하위검사로 구성되었다. 이 중 자폐행동 체크리스트는 생활연령이나 기능수준에 관계없이 자폐적 특징을 지닌 모든 개인에게 적용 가능하며, 나머지 4개의 하위검사는 언어 및 사회적 연령이 3개월부터 49개월 사이의 기능 수준을 발휘하는 아동들에게 적합하다.[26]

26) Rutter, 1972

4) CHAT(자폐영아검목표 : Checklist for Autism/PDD in Toddlers):

CHAT는 Baron-Cohen, 그리고 Allen Gillberg(1992)가 개발한 자폐아 선별 체크리스트 이다. 이들은 영아의 정기 검진시에 소아과 의사가 간단히 영아들을 검사하여 발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영아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검목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므로 CHAT는 자폐 장애 조기진단 및 중재를 위한 선별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 검목표에서 중요하게 검사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가장놀이 능력과 관심 공유 능력이다. 가장놀이는 정상적으로 12-15개월 사이의 영유아에게서 관찰 할 수 있는 것이나, 자폐를 가진 영아는 가장놀이를 전혀 하지 않는다.

다. 자폐증의 역학(疫學)과 자폐아 연령별 분석

(1) 역학(疫學)[27]

1) 유병률(Prevalence)
12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면 10,000명당 2-5명(0.02-0.05%)정도의 유병률을 갖는다.

2) 성별 분포(Sex distribution)
남아에서 3-5배정도 더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아에서 발병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하여 인지적 기능의 장애가 더 심각하고, 가족력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사회경제적 상태 (Socioeconomic status)
초기의 연구 보고에서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상태에서 더 흔히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것은 의뢰편견(referral biases)으로 판명되었다. 이 질환의 발병에 사회경제적인 상태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27) 역학(疫學) = 의학-epidemiology : 질병 분포와 이 분포를 좌우하는 요소에 대해 주로 통계학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의학의 한 분야.

(2) 자폐아 연령별 특징

1) 태내기

일반적으로 자폐아 어머니들의 임신시에는 일반 아동을 임신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

때때로 산모의 출혈, 유아의 조산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일관된 기준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산모의 풍진의 발생빈도는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 한 연구에서(Chess, 1971) 태아기의 풍진을 앓지 않는 아이보다 풍진을 앓은 아이에게서 자폐증이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유아기

자폐의 부모들은 흔히 아동의 생애 중에서 생후 1년 또는 2년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동들은 모든 면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그 후에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퇴행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자폐아의 경우 부모들은 거의 출생 시부터 그들의 아이에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모들은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 해 낼 수 없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흔히 다른 아동과 다른 차이는 사회적 무반응이다. 아동들은 이전에 습득했던 기술들을 잃어버리고 자폐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 보통 아동 발달 면에서 첫째 준거중의 하는 사회적 웃음이며 둘째 준거로는 발성을 들 수 있고 셋째 중요한 준거는 운동발달이다. 운동발달은 사회 심리적 발달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자폐아들이 정상적으로 발달된다. 이것을 연령별로 정상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9]

28) 마리아 J. 펠러즈니, [자폐증] 이화여자대학교 언어청각임상센터 역, pp.39-41.
29) 마리아 J. 펠러즈니, [자폐증] 이화여자대학교 언어청각임상센터 역,

표 1. 자폐아와 정상아의 연령별 비교

발달 내용	연령	정 상 아	자 폐 아
사회적 웃음	생후 1,2개월경	· 사회적 웃음 · 어머니의 얼굴에 대해 반응, 탐색(만져 보고, 웃고, 어머니의 눈이나 코를 찌른다.)	· 사회적인 웃음이 아니다. (빛,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 · 어머니와 눈을 맞추지 않으며 어머니의 형상 탐색에 실패 · 어머니가 떠날 때 울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음
	6~8개월	·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 · 놀이에 참여하려 한다.	· 낯선 사람과 친숙한 사람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 사람들과 놀이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
	1세경	· 까꿍놀이(peek-a-boo) · 곤지곤지(pat-a-cake)에 흥미를 느낀다.	· 간지럼 타기, 사람의 어깨 위에서 말타기와 같은 감각적 자극 놀이를 즐긴다.
	1세 이후	· 호기심이 많다. · 환경을 탐색한다.	·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 자신의 몸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한다.
발성	2~3개월 6개월 7~8개월 10개월	· 발성시작 · 소리를 이야기로 사용 · ‘마’‘마’,‘다’,‘다’와 같은 뚜렷한 자음으로 된다. · 특정한 사람에 한하여 사용	
	1세경	· 제스처 사용 · “나한테 줄래?” “빠이빠이”하며 손 흔들기 같은 것을 이해사고 표현한다.	· 사회적 발달이 나타나지 않는다. · 적절한 말을 나타내지 않는다. · 모방 몸짓으로써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운동 발달	6~8개월경	· 앉기 시작	· **9개월**에 앉기 시작
	14~15개월경	· 걷기 시작	· **9개월경**에 걷기 시작하여 빠른 발달을 보이기도 한다.

			· 이상한 자세 행동으로 비정상적인 발달을 보인다.

3) 아동기와 학령기

자폐아들이 2세와 3세가 됨에 따라 이미 있었던 문제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자폐아들의 사회적관계의 결핍이 점점 명백해진다.

표 2. 아동기와 학령기의 자폐아와 정상아의 비교

연령	정 상 아	자 폐 아
2세	· 적극적으로 모친을 따르고 어머니를 모방하며 주위환경 탐색함. · 장난감 놀이의 변화가 있음. · 분명한 이유에 의해 웃거나 소리를 지름. ·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됨. · 내 것, 나. 너의 대명사 사용함 · '예', '아니오'를 사용하며 자기 이름에 반응함 · 언어를 통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알기 시작함 · 물이 먹고 싶으면 유리컵을 잡거나 어머니를 냉장고 또는 부엌으로 데리고 감.	· 주위사람을 인식 않는 것처럼 보임 · 놀이는 고정적, 반복적이며 변화 보이지 않음 · 큰소리보단 작고 예민한 소리에 흥분하거나 두려움을 나타내며 돌아가는 물건에 매료됨. · 아무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웃음. · 울지만 눈물을 안 흘리는 경우 많음. · 말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음. · 말을 해도 대명사는 반드시 바꾸어 사용 '아니오' 는 사용하나 '예'는 드물게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치 않음.
3세	· 배변 훈련이 됨. · 규칙적인 식사습관 갖음. · 소년, 소녀 구별 가능함 · 색의 구별, 숫자 세기 학습이 가능함. · 원하는 것을 제스처로 표현함.	· 배변 훈련에 강한 저항 보임. · 먹는 음식의 종류나 양에서 특수성 보임. · 우유를 피하는 경우 많음. · 어른 말에 대한 반향어나 반복은 잦은 일임. · 모방, 손짓, 몸짓, 억양 사용치 않음.

4세	· 독립성, 사회화가 증가함 · 먹는 것, 옷 입는 것 등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병행 놀이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아동들과 협동하며 순서를 지키면서 놀 줄 암. · TV광고를 기억하고 단어대치와 말의 일부분을 바꿔 사용함. · 어조를 흉내 또는 모방 함.	· 음식 먹기, 옷 입기에서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듯 행동하고 혼자 놀기를 좋아함. · 일상생활의 변화는 분노, 발작, 불안 일으킬 가능성 있음. · TV광고의 긴 독백 반복함. · 단어를 대체할 줄 모름. · 자신만의 언어양식을 가지고 있고, 억양을 사용치 않음.
5세		· 유아기(1~2세)자폐아 보다 심하게 행동함.

나이가 많은 자폐아일수록 행동이 격해지고 남을 때리고 해치는 정도가 심해짐으로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자폐아 발달에 있어서 흥미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자폐아들은 운동발달이나 사회 심리적 발달 면에서 지체를 보이지만 비상한 기계적 암기력을 보일 때도 있고 조각조각 그림 맞추기에 뛰어난 기술을 보이기도 한다.[30]

라. 다른 자폐아 서예 교육 사례

참고 자료 중 oo대학교 서예과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 “서예가 심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 자폐아서예교육에 대한 사례를 발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서 서예가 자폐아의 교육효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리 서실엔 나보다 먼저 학원에 다녔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가 있었다. 아는 바로는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약을 잘못 먹어서 일반인보다 좀 떨어지는 아이였다.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피하곤 그랬다. 비 오는 날에는 창 밖을 보았고, 혼자서 웃고 있을 때도 많고 혼자 말도 많이 했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그 아이가 있는 시간은 다른 애들에 비해

30) 마리아 J. 펠러즈니, [자폐증] 이화여자대학교 언어청각임상센터 역,

무척 길게 느껴졌었다. 처음에는 그 애를 피하기만 했는데 점점 친해져서 이야기도 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에게서 놀림도 많이 받고 학교 친구들에게 맞고 오거나 교복이 찢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중학교도 특수학교로 보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우리 서예학원 선생님께서는 다른 애들과 똑같이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그 아이에게 영어공부도 가르치시고 많은 얘기도 해주셨다. 그 아이의 학교성적은 한문과 영어점수가 높았고 그 아이도 자신감이 생겼는지 더 열심히 해서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서실에 나와서 글도 쓰고 공부도 했다. 아마도 그 애가 받는 스트레스는 서예학원에서 풀었던 것 같다. 서예학원을 다닌 15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실에 다녔다. 그런 그 아이가 대단한 것 같다. 또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고 나아진 그 아이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 아이는 오전에는 서예학원에 나와 글을 쓰고 오후에는 그 아이네 집에서 하는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지금은 다른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잘 지낸다. **< 서예과 3학년 김oo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 중... >**

김oo 학생이 쓴 보고서를 본 후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자폐아를 직접 지도했었던 서예학원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학생에게 요청했다. 그 후 선생님을 만나 자폐아 서예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아래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oo 선생은 자폐아 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5년 동안 서예를 지도하면서 그를 일반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8살 때 서예학원을 찾아왔다. 외부사람과 전혀 적을 못하는 아이였다. 탁자 위에 과일이나 먹을 것이 놓여있으면 묻지도 않고 그냥 먹는다. 조용하여 아이를 찾으면 휴지통을 풀어헤쳐 놓거나 의자의 비닐을 뜯고 있다. 창문을 보면서 혼자 막 웃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원에 입문한 후 3년 동안 놀게 내버려두었다. 11세까지 1234를 가르쳤다. 11세가 되자 먹을 갈고 싶다고 했다. 3,4개월 동안 먹만 갈았다. 그 후 종이를 접고 싶다고 했다. 2개월 동안 종이만 접었다. 그런 후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로봇트를 가장 많이 그렸다. 중학교 갈

즈음에 이르러 부모는 그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겠다고 했으나, 부모를 설득시켜 일반학교에 들어가게 했다. 말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한문과 영어를 가르쳐 주었더니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다. 당시 정신연령은 8세에 불과했지만, 생활은 매우 성실하였고 특히 노트정리를 잘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이 아이는 학우들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했다. 그러나, 입이 무거워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서예학원에는 한번도 결석하지 않고 와주었다. 최oo군은 붓과 먹이 가장 좋은 친구였다. 최oo군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사춘기가 늦게 왔다. 20세가 되니 선생에게 다가서서 살을 비비려고 하고 이성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그런 행동은 앞으로 장가가서 예쁜 아내한테 하는 것이라고 타일렀더니 다시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군에서 영장이 나왔는데 1급 판정을 받았다. 부모는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이 아이가 정신장애가 있다고 했더니 믿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10여년을 지켜본 내가 소견서를 써주어 군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다. 요즘은 서예학원에 오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학원을 떠나면서 “제가 없어도 누군가가 선생님을 도와줄거에요.”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 집에서 경영하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카운터도 본다고 한다. 처음에 학원에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젊은이로 성장한 최oo군이 정말 대견스럽다. **< 최 oo군을 지도한 이 oo선생님의 소견 >**

이oo 선생께서는 서예학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서예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많은 사례를 갖고 계신 분이다. 최oo 군이 자폐증세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예기법뿐만이 아니라. 이oo 선생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oo선생께서는 15여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예학원에 오는 최oo군의 좋은 친구가 되주었다. 서예행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서예치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치료자의 인격이 대상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31)]

제3장 자폐아의 서예학습을 통한 임상 사례 프로그램 연구

1. 연구사례 대상과 서예활동 프로그램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 순천 소재 ㅇㅇ 중학교 특별학급에 소속된 중2 연령의 남학생 한명을 단일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아동의 실태와 프로그램 적용 전 수행능력의 수준파악은 기존의 학교에서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그 수업에 참여하여 관찰, 파악하고 동영상 촬영하여 재 관찰, 파악하였다.

(1) 객관적 자료수집
객관적 자료는 보호자와의 검사자료, 면담,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32]

1) 인적사항

a. 성별 : 남
b. 생년월일 : 1993년 5월 ○일

2) 발달력

대상자의 엄마는 26세에 평균적 나이에 임신하였다. 임신 당시 산모는 큰 사고나 특별히 놀라는 일이 없었으며 집안일을 돌보고 지냈다. 태아의 특이 사항은 임신 중에는 별로 없었으며 산모는 전체적으로 몸이 약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분만으로 순산하였다.

---

31) 서예치료의 이론적 근거- 원광대학교 서예과 김수천 (2006)- 재인용
32) 음악치료를 통한 자폐아동의 반응연구-한세대학교 대학원 백승희 1999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발달이 늦다고 생각한 시기가 대상자 5살 때라고 한다. 부모님이 이상을 느끼고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진단명은 자폐증(Autism)이었다. 그 때 당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감기가 크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사다 먹인 그 약이 잘못 지어진 약이 어서 그 약의 영향 탓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8살 때까지 ○○대학병원의 조기교실에 다녀 교육받고 지냈으며 8살 이 후 일반 초등학교 특수반에 진학하였고 6년 졸업 후 현재 특수학교 재학 중에 있다.

○○대학병원의 조기교실에 다녀 교육받고 지냈을 때부터 그 기관에서 제시한 교재들의 학습으로 인하여 대상자는 동적인 행동 보다는 정적인 행동이 많이 보여진다. 어떻게 보면 신체 활동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 점이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보면 운동을 1순위로 좋아하는 사람과 공부를 1순위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 그렇게 일반인들 간의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듯이 자폐아와 일반인과는 다른 점 있을 뿐 일반인들의 다른 성향처럼 똑같이 자폐아들 사이에서도 다른 성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은 신체활동이 문제점이라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고 본다.[33]

3) 대상자의 사회성숙도 검사와 간편지능검사(인물화 검사)를 통한 진단추정결과

사회성숙도 검사란 자신의 실제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의 정도를 가늠하는 발달척도로서 주로 아동과 정신지체아(지적장애아)의 사회적 적응발달을 측정하는 데 이용한다.

E.A.돌이 제작한 사회성숙도검사의 경우 출생 후부터 25세까지 측정하고 있는데, 117개의 문항을 각 연령단계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

8개의 영역으로 나눈 검사문항은 ① 일반 자조능력(自助能力), ② 독립적 식사능력, ③ 외모치장능력, ④ 신변이나 경제에 관한 자발적 능력, ⑤ 작업능력, ⑥ 의사

33) 음악치료를 통한 자폐아동의 반응연구-한세대학교 대학원 백승희 1999 (42~46p)

전달능력, ⑦ 운동능력, ⑧ 사회화정도로 되어 있다. 이 척도에 따르면 사회적 연령 수준과 사회성 지수를 계산하는데, 유아기까지는 ①~③이 거의 완성되어야 하고, 아동기부터 청년기에는 ④, ⑤, ⑧에 관한 항목의 비율이 증가한다.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회성숙도검사로는 1974년 미국 정신박약아협회에서 제작한 적응행동척도(adaptive behavior scale:ABS)가 있다.

간편 지능 검사란 인물화에 의한 간변지능검사는 아동이 그린 남아상과 여아상을 토대로 지능을 검사하는 것 이다.

언어 성 검사가 되지 않는 유아부터 만 12세 아동까지 적용하는 검사로서 남아상, 여아상을 통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확히 그렸을 경우 IQ가 높고, 형태가 많이 틀린 경우 IQ가 낮다.

사회성숙도 검사와 간편지능검사(인물화 검사)를 통해서 sa와 sq(사회성숙도검사), 간편지능검사 (인물화 검사)로 학습자의 지능을 추정 결과를 보면 사회성숙도 검사의 경우는 사회연령과 사회지수로 학습자의 사회연령이 6.75세이고, 사회지수는 48.2로 사회적 연령이 약 7세로, 혼자서 조작을 하고 대, 소변 등을 가리며 혼자 식사하기, 이동하기, 작업하기,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 능력이 비장애아동의 7세 아동과 비슷한 형태의 결과임을 추측할 수 있겠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 검사 지는 각 문항에 표시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 검사의 경우는 학습자 본인보다는 교사와 학부모가 실시하는 검사로서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성과 관련된 학습기준을 선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간편지능검사를 통한 학습자의 진단 결과는 남아 편차는 57, 여야 편차는 61로 이 학습자의 경우는 평균 IQ는 59이며. 이것을 토대로 정신연령을 산정하면 7.57세로 추정 되었다.

최종검사 결론으로 비장애아동과 비교하면 8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나타났다.

(2) 사정 (Assessment)[34]

1) 사회적 능력

· 눈맞춤이 있다.

· 동생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

2) 언어소통 능력

· 생리적 욕구에 관한 말들은 반복적으로 한다.

· 갖고 싶은 물건이나 그 상황에 원하는 물건은 타인의 손을 가져간다.

· 제한적이지만 의사소통의 대상은 가족 뿐이다.

3) 운동 능력

· 기존 학습 프로그램의 동적인 프로그램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다.

· 손바닥을 펴서 나비모양으로 계속 움직인다.

4) 인지능력

· 지시하는 사물을 가져 올 수 있다.

· 노래의 한 부분만 반복적으로 부른다.

· 한글을 말하고 쓸 수 있다.

· 덧셈, 뺄셈, 곱셈을 할 수 있다.

34) 현재 평가

5) 지각능력

·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이 있다.

· 가족들의 이름을 다 안다.

6) 정서적 발달

· 기쁠 땐 '꺄-' 하고 소리를 지른다.

· 짜증이 날 땐 울거나 자신의 손을 물어버린다.

· 불안할 땐 본인이 위치한 그 공간의 허공을 계속 흘겨본다.

· 기쁨, 불안, 짜증 외에 잘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려우나 표정, 몸짓으로 파악하여 알아내야 한다.[35)]

7) 정신적인 측면

· 타인의 지시를 늦게 인지하고 행동한다.

8) 기타 영역

· 박스종이 같은 딱딱한 종이에 그래픽로고디자인 모방그리기를 좋아한다.

· 청력 정상이다.

· 소리에 대해 민감하다.

· 잠을 잘 이루지 못하여 1일 1회 신경 안정제와 함께 다른 약들을 복용 중이다.

나. 서예활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교육 가능 급 자폐아 학생의 학습행동과 부적응 행동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된 프로그램은 서예활동 프로그램으로서 기본학습 목표는 "한글을 판본체로 쓸 수 있다."를 목표로 하고 표 3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35) 음악치료를 통한 자폐아동의 반응연구-한세대학교 대학원 백승희 1999

표 3. 서예활동 프로그램 표

차시	학습 시간 (분:초)	학습량 (장)	학습 실시내용
1	5:05	1	가로획 긋기 - 재료 다루는 것에 익숙해지기
2	5:05	1	세로획 긋기 - 재료 다루는 것에 익숙해지기
3	10:02	2	기초 “ㄱ”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4	10:02	2	기초 “ㄴ”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5	10:02	2	기초 “ㄷ”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6	13:04	3	기초 “ㄹ”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7	13:04	3	기초 “ㅁ”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8	13:04	3	기초 “ㅂ”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9	13:04	3	기초 “ㅅ”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10	13:04	3	기초 “ㅇ”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11	13:04	3	기초 “ㅈ”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12	13:04	3	기초 “ㅊ”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13	13:04	3	기초 “ㅋ”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14	13:04	3	기초 “ㅌ”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15	15:02	4	기초 “ㅍ”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16	15:02	4	기초 “ㅎ”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17	18:08	4	**“가~기” 판본체로 쓰기** -책상에 놓고 앉아쓰기, 글자 순서 맞춰 쓰기
18	18:05	5	**“나~니” 판본체로 쓰기** -일정한 크기로 쓰기
19	20:25	5	**“다~디” 판본체로 쓰기** -칸, 줄에 맞춰 일정한 크기로 쓰기
20	16:04	5	**“라~리” 판본체로 쓰기** -글자획순 맞춰 쓰기
21	27:04	6	**“마~미” 판본체로 쓰기** -학습량 늘림에 적응하기
22	20:54	6	**“바~비” 판본체로 쓰기** -글자 획순 바르게 쓰기
23	14:26	6	**“사~시” 판본체로 쓰기** -학습준비 같이 하기 -2장 째부터 스스로 쓰기 -천천히 쓰기
24	17:19	6	**“아~이” 판본체로 쓰기** -글자 "o" 획순 바르게 쓰기 -지도자의 지적에 따라 학습 하기
25	18:35	6	**“자~지” 판본체로 쓰기** -팔 들고 글쓰기

			- 체본 보고 쓰기
26	18:44	6	**“차~치” 판본체로 쓰기** -2장부터 스스로 학습하기
27	18:17	6	**“카~키” 판본체로 쓰기** -체본 보고 학습 -학습량 늘리기 시도
28	23:31	6	**“타~티” 판본체로 쓰기** -기준량 학습 마치기
29	21:28	6	**“파~피” 판본체로 쓰기** -칸 맞춰 학습하기, 기준량 학습 마치기
30	23:23	6	**“하~히” 판본체로 쓰기** -획수 맞게 쓰기
31	13:40	6	**“자유명제(고생끝에 낙이있다)” 판본체로 쓰기** -글자 순서, 획순 맞춰 쓰기

2. 서예 - 판본 체

가. 판본 체의 특징

(1) 특징

훈민정음 창제와 더불어 만들어진 서체인 판본 체, 그 이름은 한글 판본에 쓰여진 글자체의 바탕을 두어 붙여진 이름이고 획이 매우 단순하여 붓글씨의 초보적인 학습에 적합하다 전해지고 있다.

(2) 판본체와 궁체의 차이점

<그림 1> 판본체와 궁체

그림 1과 같이 판본 체는 궁체에 비해 강건하고 근엄하여 다소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고 판본 체의 길이와 간격의 특징은 세로획의 길이가 왼쪽에 오는 자음의 길이와 비슷하지만 궁체는 세로획이 자음에 비해 길어짐을 볼 수 있다.
판본체는 대부분이 수직, 수평 대칭 방향으로 'o'을 제외하고 모두 곧은 획이지만 궁체는 가로획도 오른쪽이 올라가게 쓰는 등 그 방향이 매우 다양하다.
판본 체는 접필 할 곳을 모두 깊게 접필 하지만 궁체는 그 정도나 위치가 다양하

다. 글자의 기준을 비교해보면 판본 체는 글자의 중심을 기준으로 쓰며 궁체는 오른쪽 세로획을 기준으로 한다.

나. 판본체법

(1) 붓 잡는 방법

1) 쌍구법 :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으로 붓대를 감싸 잡는 방법으로서 보통 크기의 서제를 쓰는데 적당하다.

2) 단구법 :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붓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붓대의 안쪽에서 받쳐 주는 방법으로 이름 등 작은 글씨를 쓰는데 적당하다.

(2) 팔의 자세 법

1) 현완법 : 팔꿈치를 들고 쓰는 방법으로 판본 체를 쓸 때에는 주로 쌍구법으로 붓을 잡고 현완법으로 쓰는 것이 적당하다.

2) 제완법 : 팔꿈치를 책상에 가볍게 대고 쓰는 방법으로서 중간 크기 글자를 쓰기에 적합하다.

3) 침완법 : 왼손을 오른쪽 손목에 받치고 쓰는 방법으로서 단구법과 함께 쓴다. 잔글씨를 쓰는데 많이 쓰인다.

(3) 재료용구 사용법

1) 붓 : 털의 길이가 5㎝ 정도로 준비하며 사용한 붓은 깨끗이 씻어 붓 말이 개에 말아둔다.

2) 벼루 : 사용 후엔 필세의 물과 붓으로 닦아 둔다.

3) 화선지 : 4자 서제까지는 8절이 적당하다.

4) 먹 : 요즘은 먹물을 주로 많이 사용하나 먹물만 쓰기엔 너무 진하므로 시판하는 먹물은 약간의 물을 섞어 사용한다.

5) 종이 받침 : 너무 얇지 않은 천을 사용한다.

6) 필세 : 붓을 씻는 물통으로 붓을 씻을 수 있는 그릇이면 된다.

7) 연적 : 먹을 갈 물을 담는 그릇으로 입이 좁은 병을 사용한다.

8) 서진 (문진) : 붓글씨를 쓸 때 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놓고 쓰는 도구이다.

3. 측정기준과 프로그램 세션의 계획

본 연구 세션의 종합적인 평가는 학습향상이 어느 정도 목표를 성취 했는지 보여주고,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나중의 통합교육을 예비하여 진취적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프로그램 적용들의 기록을 기록부에 작성하기도 했지만 분명성을 좀 더 기여하기 위해 2008.3.3 ~ 10.12일까지의 기존의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참여도, 학습자의 행동 상태와 서예활동 프로그램을 실시 할 때의 학습자의 참여도와 행동 상태의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그 촬영물과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는 지 어떠한 향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학습 프로그램 참여도 파악 일정은 표 4를 기점으로 시행하였다.

표 4. 기존학습 프로그램 참여도 파악 일정

임상실험 일정	2008/03/03~2008/6/27 기점, 평일(월~목요일)
학습관찰시간	최대 ~30분 내 기점

서예활동 프로그램의 일정은 표 5를 기점으로 시행하였다.

표 5. 서예활동 프로그램 일정

임상실험 일정, 시간기준	2008/06/29~2008/10/12 기점, 휴일(토,일 기준) 저녁 7~8시 사이 내에 시행	
학습시간	1회당	최대 ~30분 내 기점
학습량		최소1~최대6장 기준

실험일정은 학습자의 방학기간을 기점 전, 후로 맞추어 되도록 연주 휴일로 맞춰 31회기 일상실험으로 시행하였고 학습 시간은 아무래도 정상나이보다 지능이 낮아 자신의 욕구 자제력이 부족한 영향으로 학습자가 좋아하는 만화 TV 프로그램 방영 시간을 피해 7~8시를 기점으로 맞추어 학습 을 지도 하였다.

학습자의 스스로의 외출이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로 학습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였고 외부의 잡음을 차단하여 학습자의 집중력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기 위해 방문을 닫고 학습하는 것을 동영상 촬영과 같이 진행하였다.

기초적인 재료 장만은 지도자가 제공하였고 학습준비 또한 처음에는 지도자가 마련하였다.

교재나 다름없는 체본은 지도자가 미리 작업해서 사용하였으며 학습지인 종이는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먹물에 잘 번지지 않는 쓰기 용이한 선화지 1/2절지 사용하였고 먹물 또한 갈아서 쓸 수없는 학습자의 상황으로 먹물과 물의 적당한 비율을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한글 서예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의 인지적 능력을 고려하여 인지가 전혀 되지 않는 한문보다는 조금이나마 인지가 되고 획수가 적으며 현재 학습자가 많이 접하고 있는 친숙한 한글을 씀으로써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지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택하게 되었다.[36)]

36) 음악치료를 통한 자폐아동의 반응연구-백승희1999(38~41p)

3. 임상사례

가. 기존 학습 프로그램 학습 실태 파악

(1) 기존 학습 프로그램 학습과정

기존의 학교에서의 학습 프로그램은 하루에 오전, 오후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한 프로그램당 한 시간 반~두 시간 가량 소요 되는 학습이 진행 되었으며 본 논문에 해당하는 연구 프로그램 적용 전의 신뢰감 있는 비교분석을 위해 본 논문 연구 프로그램의 특성과 조금은 연계되지 않는 촬영이 가능한 상황의 프로그램 몇 가지를 관찰하고 촬영에 임했다.

표 6. 기존 프로그램 실시 계획표

요일	기간, 시간	실시 프로그램	실시내용	실시과정	기대되는 효과
월	2008. 3/3~ 6/27, 오전 11:30 ~ 12:00	에어로빅	활동참여 프로그램 지도자 활동 보고 따라하기	한 공간에서 16명 되는 아이들과 3명의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지도자활동에 따라 흥겹게 활동 학습하기
화		요가	활동참여 프로그램 지도자 활동 보고 따라하기	한 공간에서 16명 되는 아이들과 3명의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이 진	지도자활동에 따라 흥겹게 활동 학습하기

				행되었다.	
수		태권도	활동참여 프로그램 지도자 활동 보고 따라하기	한 공간에서 16명 되는 아이들과 6명의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지도자활동에 따라 흥겹게 활동 학습하기
목		셈하기 학습	셈하기 프로그램, 초등학교2~3학년 과정의 산수문제(덧셈, 뺄셈,곱셈, 길이계산) 풀기	1:1의 학습자가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학습지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까지만 집중하여 풀어보기

(2) 학습결과

표 7. 기존 학습 프로그램 결과 표

요일	기간, 시간	실시 프로그램	실시내용	실시과정	학습결과
월	2008. 3/3~ 6/27, 오전 11:30	에어로빅	활동참여 프로그램 지도자 활동 보고 따라 하기	한 공간에서 16명 되는 아이들과 3명의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3명의 지도자가 내부에 있어 학습지도와 통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확연히 다르게 의자에 가만 앉아서 참여하지 않고 반 강제로 시

					키려고 리드할 때 부적응 행동 즉 자신의 손을 물어버리거나 소리지름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거부했고 전혀 학습에 동참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화	~ 12:00	요가	활동참여 프로그램 지도자 활동 보고 따라 하기	한 공간에서 16명 되는 아이들과 3명의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월요일에 했던 에어로빅과는 달리 음악과 동작들이 차분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또 한 마찬가지로 부적응행동 즉, 자신의 손을 물어뜯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이며 의자에 가만 앉아만 있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수		태권도	활동참여 프로그램 지도자 활동 보고 따라하기	한 공간에서 16명 되는 아이들과 6명의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위의 프로그램 보다 지도자가 더 많아 위의 프로그램 때보다도 아이에게 더 관심을 쏟으며 학습지도에 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 것 또한 전혀 참여하지 못하며 부적응 반응을 보이며 그 공간을 나가려는 거부반응을 보였다.
목		산수학습	셈하기 프로그램, 초등학교 2 ~ 3 학년 과정의 산수 문제 (덧셈 , 뺄셈,곱셈, 길이계산) 풀기	1:1의 학습자가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위의 프로그램과는 성향이 아주 다른 1:1학습인 점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지만 아이의 참여 태도가 상당히 달랐다. 위의 프로그램은 강제로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여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던 아이가 문제지를 제시해 주었을 때는 지도자의 지시에 잘 따라 부적응 행동반응 없이 차분히 집중 있게 아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나. 대상자의 학습 향상 목표 설정

자폐아 발달에 있어서 이들은 운동 발달이나 사회 심리적 발달 면에서 지체를 보이지만 비상한 기계적 암기력을 보일 때도 있고 조각조각 그림 맞추기에 뛰어난 기술을 보이기도 하는 흥미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 해 보았을 때 위 표에서 기록된 기존 프로그램의 학습 반응 분석과 같이 대상자는 동적인 행동보다는 정적인 행동이 많은 아이라고 하고 파악하고 평소에 자주 한다는 행동들을 사정 (Assessment)[37] 해 보았을 때 박스 종이 같은 딱딱한 종이에 그래픽로고디자인 모방하여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걸 보면 아이는 미술 쪽에 흥미를 두고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색칠학습에는 집착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필, 펜 대신 색다른 분야인 서예 분야 중 로고 그래픽 디자인처럼 반듯이 작업해야 하는 성향과 비슷한 판본 체 학습을 저자 장성연의 “한글판본체” 교재의 학습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적용 할 임상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기초인 자음, 모음과 결합한글 학습, 마지막의 자유명제8자 쓰기까지의 31차까지 학습하기, 학습하는 동안 부적응 행동 감소 등을 기본 목표로 시행하였다.

37) 현재 평가

다. 서예활동 학습 프로그램

(1) 서예활동 프로그램 학습과정

표 8. 서예활동 프로그램 계획표

차시	학습 시간 (분:초)	학습량 (장)	학습 실시내용	지도목록 (기대되는 효과)
1	5:05	1	가로획 긋기 - 재료 다루는 것에 익숙해지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2	5:05	1	세로획 긋기 - 재료 다루는 것에 익숙해지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3	10:02	2	기초 “ㄱ”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4	10:02	2	기초 “ㄴ”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5	10:02	2	기초 “ㄷ”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6	13:04	3	기초 “ㄹ”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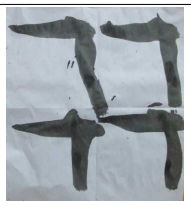
7	13:04	3	기초 “ㅁ”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8	13:04	3	기초 “ㅂ”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9	13:04	3	기초 “ㅅ”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10	13:04	3	기초 “ㅇ”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11	13:04	3	기초 “ㅈ”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12	13:04	3	기초 “ㅊ”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13	13:04	3	기초 “ㅋ”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14	13:04	3	기초 “ㅌ”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15	15:02	4	기초 “ㅍ”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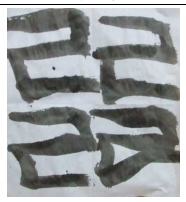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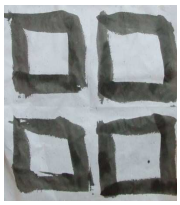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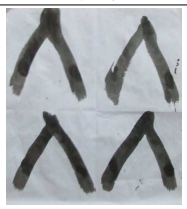
16	15:02	4	기초 “ㅎ”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17	18:08	4	**“가~기” 판본체로 쓰기** -책상에 놓고 앉아쓰기, 글자 순서 맞춰 쓰기	학습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기
18	18:05	5	**“나~니” 판본체로 쓰기** -일정한 크기로 쓰기	강한 거부반응 없이 기준학습량 달성하기
19	20:25	5	**“다~디” 판본체로 쓰기** -칸, 줄에 맞춰 일정한 크기로 쓰기	체본 보며 학습하기
20	16:04	5	**“라~리” 판본체로 쓰기** -글자획순 맞춰 쓰기	부적응행동 감소
21	27:04	6	**“마~미” 판본체로 쓰기** -학습량 늘림에 적응하기	늘린 학습량 달성하기
22	20:54	6	**“바~비” 판본체로 쓰기** -글자 획순 바르게 쓰기	늘린 학습량에 거부하지 않고 적응하기
23	14:26	6	**“사~시” 판본체로 쓰기** -학습준비 같이 하기 -2장 째부터 스스로 쓰기 -천천히 쓰기	학습하는 중에 좀 더 차분해지기
24	17:19	6	**“아~이” 판본체로 쓰기**	학습에 좀 더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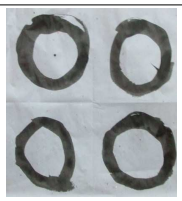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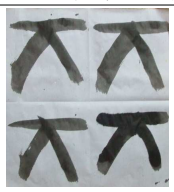
			-글자 "o" 획순 바르게 쓰기 -지도자의 지적에 따라 학습 하기	분히 집중하기, 지도에 잘 따르기
25	18:35	6	**“자~지” 판본체로 쓰기** -팔 들고 글쓰기 - 체본 보고 쓰기	글자 순서 알기
26	18:44	6	**“차~치” 판본체로 쓰기** -2장부터 스스로 학습하기	부적응 행동 감소하기
27	18:17	6	**“카~키” 판본체로 쓰기** -체본 보고 학습 -학습량 늘리기 시도	부적응 행동 감소하기
28	23:31	6	**“타~티” 판본체로 쓰기** -기준량 학습 마치기	기준량 학습 마치기
29	21:28	6	**“파~피” 판본체로 쓰기** -칸 맞춰 학습하기, 기준량 학습 마치기	기준량 학습 마치기
30	23:23	6	**“하~히” 판본체로 쓰기** -획수 맞게 쓰기	부적응 행동 감소
31	13:40	6	**“자유명제(고생끝에 낙이있다)” 판본체로 쓰기** -글자 순서, 획순 맞춰 쓰기	부적응 행동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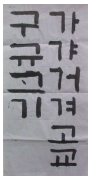
(2) 학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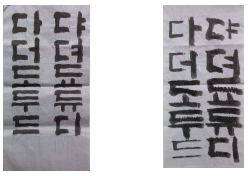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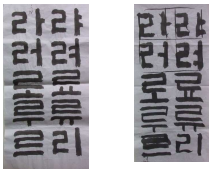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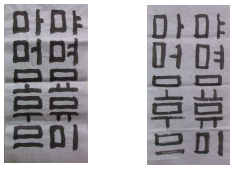
표 9. 서예활동 프로그램 학습 결과표

	차시	학습 시간 (분:초)	학습	학습결과	부적응행동 (회)
기초 적응 단계	1	5:05	 가로획 긋기 - 재료 다루는 것에 익숙해지기	부적응행동은 학습시간에 비해 꽤 나타났었어도 재료 다룸에 거부반응이 없었다.	5
	2	5:05	 세로획 긋기 - 재료 다루는 것에 익숙해지기	부적응행동은 전시간보다 학습시간에 비해 더 나타났었어도 재료 다룸에 거부반응이 없었다.	7
기초 입문 단계	3	10:02	 기초 “ㄱ”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점차 글자 익히기에 흥미를 보이는 듯 했고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6
	4	10:02	 기초 “ㄴ” 쓰기	점차 글자 익히기에 흥미를 보이는 듯 했고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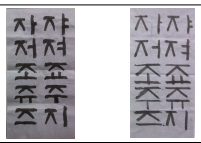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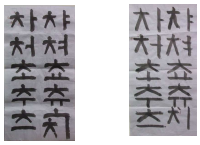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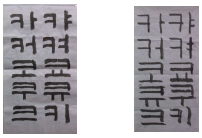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5	10:02	 기초 “ㄷ”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점차 글자 익히기 흥미를 보이 며 손 물어뜯기나 소리지름 행동이 적어지는 것으로 볼 때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4
	6	13:04	 기초 “ㄹ”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점차 글자 익히기 흥미를 보이 며 손 물어뜯기나 소리지름 행동이 적어지는 것으로 볼 때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4
	7	13:04	 기초 “ㅁ”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점차 글자 익히기 흥미를 보이 며 손 물어뜯기나 소리지름 행동이 적어지는 것으로 볼 때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4
	8	13:04	 기초 “ㅂ”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점차 글자 익히기 흥미를 보이 며 손 물어뜯기나 소리지름 행동이 적어지는 것으로 볼 때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4
	9	13:04	 기초 “ㅅ”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손 물어뜯기 행동을 보이나 학습량 달성은 마쳤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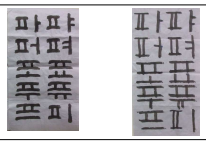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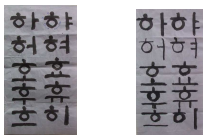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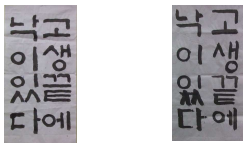
	10	13:04	 기초 “ㅇ”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어느 정도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학습에 임했다.	3
	11	13:04	 기초 “ㅈ”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반복적인 말과 노래를 하는 성향을 보였으나 학습량은 달성하였다.	2
	12	13:04	 기초 “ㅊ”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손 물어뜯기 행동을 보이나 학습량 달성은 마쳤다.	2
	13	13:04	 기초 “ㅋ”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글자 익히기 흥미를 보이며 손 물어뜯기나 소리지름 행동이 적어졌다.	2
	14	13:04	 기초 “ㅌ”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익숙해진 모습을 보이며 학습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학습을 마쳤다.	x

	15	15:02	 기초 “ㅍ”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학습을 마쳤다.	x
	16	15:02	 기초 “ㅎ” 쓰기 -학습량 늘려 집중학습하기	학습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학습을 마쳤다.	x
기초 입문 단계	17	18:08	**“가~기” 판본체로 쓰기** -책상에 놓고 앉아쓰기, 글자 순서 맞춰 쓰기 **지도자작품 학습자작품** 	갑자기 글자수 늘어난 학습이라 그 학습 공간에서 벗어나지만 않게 목표를 두고 학습을 시행시켰고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났었어도 공간을 뛰쳐나가지 않고 목표 학습량을 달성하였다.	17
	18	18:05	**“나~니” 판본체로 쓰기** -일정한 크기로 쓰기 	글자의 줄, 칸에 맞춰 쓰는 학습이 향상되었고 1회 차 만에 부적응행동이 감소하며 한 장 정도는 스스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14
	19	20:25	**“다~디” 판본체로 쓰기** -칸, 줄에 맞춰 일정한 크기로 쓰기	글자획수와 학습량이 한 장 늘어났음에도	14

				강한 거부반응 없었고 써야할 글자 순서를 아는 걸로 볼 때 학습하고 있는 글자, 줄, 칸의 맞춤 학습, 빠른 속도감으로 봤을 때 꾀가 생겨 빨리 쓴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글자를 인지하여 학습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파악된다 보여진다.	
	20	16:04	**“라~리” 판본체로 쓰기** -글자획순 맞춰 쓰기 	빨리 쓰는 것의 교정을 위한 학습지도를 중점으로 천천히 쓰기 학습지도에 따라 두껍게 차분히 쓰는 모습을 보였다.	10
	21	27:04	**“마~미” 판본체로 쓰기** -학습량 늘림에 적응하기 	어느 정도 학습의 습득을 통해 두껍게 쓰기에 학습하는 반면에 또 속도감 높여 쓰는 성향을 보였으나 늘어난 학습량에도 전보다는 거부치 않고 적응 하는 모습을 보였다.	11
	22	20:54	**“바~비” 판본체로 쓰기** -글자 획순 바르게 쓰기	줄, 칸, 획순에 잘 맞춰 학습하는 태도를 보였다.	7

	23	14:26	**“사~시” 판본체로 쓰기** -학습준비 같이 하기 -2장 째부터 스스로 쓰기 -천천히 쓰기 	전 차시와 마찬가지로 줄, 칸, 획순 학습은 물론 ㅅ자의 비례 학습까지도 잘 습득한 모습을 보였다.	x
	24	17:19	**“아~이” 판본체로 쓰기** -글자 "o" 획순 바르게 쓰기 -지도자의 지적에 따라 학습 하기 	처음엔 ㅇ자의 획순을 틀리다가 교정지도 후 지도자의 말에 따라 올바르게 학습하였다.	2
	25	18:35	**“자~지” 판본체로 쓰기** -팔 들고 글쓰기 - 체본 보고 쓰기	줄, 칸의 맞춤 학습을 거의 인지하고 전체적 글자 크기 일정과 간격의 균일과 조화를 맞춰 학습하는 것이 전 회차 학습 때	4

				보다 눈에 확 띄게 차이가 났다.	
	26	18:44	**“차~치” 판본체로 쓰기** -2장부터 스스로 학습하기 	글자 획수의 증가로 글자획순이 틀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집중력이 감소됨이 파악되었으나 전체적인 균형, 조화향상은 유지 되고 있음을 보였다.	x
	27	18:17	**“카~키” 판본체로 쓰기** -체본 보고 학습 -학습량 늘리기 시도 	늘어난 획수로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긴 하나 5장을 스스로 다 학습하는 것을 봤을 때 차츰 학습이 학습자에게 익숙해지고 있음을 보였다.	x
	28	23:31	**“타~티” 판본체로 쓰기** -기준량 학습 마치기 	전날의 수면부족으로 부적응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전 차시에 비해 부적응 행동이 보였으나 평소 기준 분량은 별 강한 거부 반응 없이 스스로 학습을 마쳤다.	3
	29	21:28	**“파~피” 판본체로 쓰기** -칸 맞춰 학습하기, 기준량 학습 마치기	글자인지를 아주 잘하고 천천히 쓰며 어느 선에서 붓 정돈을 해달라고 권하는 것이 붓을 다루는 데에	x

				익숙해짐을 보였다.	
	30	23:23	**“하~히” 판본체로 쓰기** -획수 맞게 쓰기 	스스로 5장을 다 학습 하여 집중력이 우수함을 보였다.	x
기초 심화 단계	31	13:40	**“자유명제(고생끝에 낙이있다)” 판본체로 쓰기** -글자 순서, 획순 맞춰 쓰기 	글자 순서도 바뀌었는데도 전혀 방황치 않고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큰 거부 없이 스스로 5장 학습을 마쳤다.	x

라. 교육효과

학습자는 일단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에 강한 부적응 행동, 자신의 손을 물어뜯으며 소리를 지르는 경우로 하기 싫다는 표현을 하는 자해 행위를 보였다. 그 것을 관점으로 얼마나 자해 행동의 횟수가 감소하는 지를 기준으로 집중력 향상을 판단 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학습결과 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습시간이 차시 마다 늘어남과 함께 부적응행동도 차츰 늘어나다가 학습기간이 중반쯤으로 접어들어 학습시간과 학습량이 늘어남에도 자해행동 횟수가 적어짐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으로 파악해 볼 때 아이가 점점 서예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미술 교육(美術敎育)이란 조형적인 미의 표현 및 감상력 따위를 기르는 교육이라는 뜻이며 이 글귀 중 어디 하나라도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하는 교육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다.

물론 일반인들과는 확연히 지적 차이가 나는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적인 방법요소가 많은 미술치료가 현재에는 무조건 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적용되고 학습지도 되는 미술은 미술치료분야의 학습을 시키는 추세이나 언론에서도 거론 되었듯이 머지않아 후세에는 전체 교육들과 학교 소속들이 통합되어 미술과목 또한 마찬가지로 통합교육으로 시행 될 것이다.

통합교육이란 학생이 가진 장애란 개성을 하나의 교육적 요구로 보고 가능한 한 그것을 충족시켜 주며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시켜주기 위해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 즉 일반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동일한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장애라는 개성을 지닌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한 학생으로서 그들의 개성에 최상의 적합한 지원을 받으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장애라는 개성이 물론 강해서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과는 동일한 환경 즉 일반학습에 입급할 수 없는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도 되도록이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체제의 전환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장애학생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서 최근 특수교육의 추세는 학생들의 장애를 분리하는 특성, 특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요구 즉, 학생의 개성이나 다양성으로 인정하여 교육 환경을 분리시키는 제한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거론 하였듯이 통합교육을 예비하여 연구, 분석 한 논문으로서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중등교육의 실태를 인식하고 훗날의 통합교육을 시행 할 때 적용 될 수 있는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적용 되었을

때의 실태를 미리 파악 하고자 중등 자폐 학생을 단일 대상으로 연구 시행 하였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차지 할 수도 있으나 프로그램 적용 과정과 결과 그리고 학습 결과물을 분석해 볼 때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다.

통합교육이 시행되었을 때는 일반중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따로 만들어져서 특수 학급 교사에 의해 장애학생들의 교육이 시행 되겠지만 예체능 분야, 즉 연구자가 소속하는 미술 과목은 현재 일반학교에서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가 아닌 미술실에서 따로 미술교사의 지도를 받듯 똑같이 시행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술교사들은 특수학급교사와 협력교수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통합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작성·운영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며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 자신은 물론 학교의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거부감과 편견을 제거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통합교육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해 현직 교사 들 뿐만 아니라 교사를 희망하는 예비교사들 부터도 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고려하여 일반학생들과의 통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여 통합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학위논문

강위병, 권명옥, [자폐성 아동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8)
강영심, [자폐증의 진단과 치료]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8)
교육부,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권진만, [서예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학습행동 및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1991)
김기승, [한국서예사] (서울 : 정음사, 1975)
김성인, [운동교육 프로그램이 자폐아동 발달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김수길, [고등학교 서예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김수천, [서예치료의 이론적 근거] (원광대학교 서예과, 2006)
김승국외, [특수아동 교육] (서울 : 백록 출판사, 1983)
김승국, 김옥기, [사회성숙도 검사]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8)
김승국, [자폐 아동 교육] (서울 : 양서원, 1990)
김충현, [서예교육의 내용과 지도법(예능교육)], (서울 : 현대교육 총서출판사, 1963)
김삼랑, [미술교육개론] (서울 : 미진사, 1994)
김재은, [아동의 심리치료] (서울 : 배영사, 1980)
김춘일, [미술과 교육] (서울 : 갑을출판사. 1986)
김태련, 박남규,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지침서]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6)
김효선, [중등미술 교과지도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양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문교부, [정신박약학교 중학부 예능 교사용 지도서]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990)

문교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미술5]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983)
문충길, [초등학교 전통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민상덕, [서예란 무엇인가] (대구 : 서학회, 1992)
박소영 외 공저,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박병천, [서예지도론] (서울 : 일지사, 1985)
서상완, [움직임 교육을 통한 자폐아 치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30권, 제1호, 1991)
정보인, [정신지체 아동의 자해행위에 대한 평가 및 치료방향]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 제12차 전문요원 교육자료, 1989)
정주상, [서예 (서울 : 월간 서예사, 1975)
하진숙, [통합 지도를 통한 미술 수업의 지도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등학교 교사용 미술지도서(실험용)]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인터넷 사이트

판본체 기법 - http://blog.daum.net/nocafe2007/

초등산수기출문제지 - http://cafe.daum.net/dhd123/1nUD/6

통합교육 - http://cafe.daum.net/mycafe1003/67aN/39

한국 자폐학회 - www. autism. or. kr

한국놀이 치료학회 - sookmyung. ac. kr/ ka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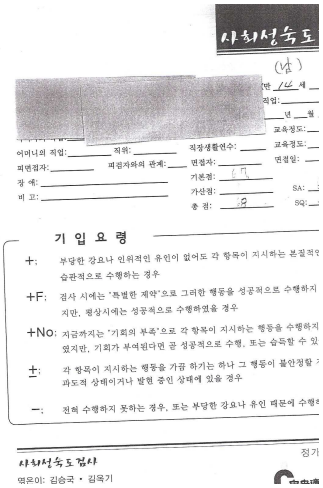
한국 특수유아 교육학회 - www. earlyeducation. or. kr

한국 통합교육 연구회 - www. inclusion. co. kr

한국 아동학회 - www. childkorea. or. kr

http://100.naver.com/100.nhn?docid=84783

(그림 2) 사회성숙도 검사



사회성숙도

(1/2)

[redacted] 만 15 세

직업: ___

년 ___ 월

교육정도: ___

교육정도: ___

면접일: ___

어머니의 직업: ___ 직위: ___ 직장생활연수: ___

피면접자: ___ 피검자와의 관계: ___ 면접자: ___

장 애: ___ 기본점: 67

비 고: ___ 가산점: ___ SA: ___

총 점: 82 SQ: ___

기 입 요 령

+: 부당한 강요나 인위적인 유인이 없어도 각 항목이 지시하는 본질적인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F: 검사 시에는 "특별한 제약"으로 그러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지만, 평상시에는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No: 지금까지는 "기회의 부족"으로 각 항목이 지시하는 행동을 수행하지 었지만, 기회가 부여된다면 곧 성공적으로 수행, 또는 습득할 수 있

±: 각 항목이 지시하는 행동을 가끔 하기는 하나 그 행동이 불안정할 과도적 상태이거나 발현 중인 상태에 있을 경우

−: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강요나 유인 때문에 수행

사회성숙도검사

정가

영은이: 김승국 · 김옥기

IV − V

+NO SD .....56. 소액의 돈을 가지고 사 오라는 물건을 사 온다 4.01

+S .....57. 나이가 비슷한 3~4명의 어린이들과 어울려 경쟁적이며 활동적인 놀이를 한다 ; 집 지키기, 술래잡기, 줄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돈차기등을 한다 4.07

O .....58. 연필이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다 ; 사람, 집, 나무, 동물 같은 것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린다 4.16

+L .....59. 좀 멀더라도 가본 일이 있는 곳은 혼자 또는 친구와 같이 갔다 온다 ; 놀이터 학교, 교회 또는 유치원에 갔다 온다 4.28

+ SHD .....60. 혼자서 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소변을 보고, 잠자리에 든다 4.91

V −VI

+SHE .....61. 칼이나 숟가락으로 빵이나 떡에 쨈이나 꿀을 발라먹는다 5.08

C .....62.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이름이나 두서너 개의 낱말을 보지 않고 쓴다 5.14

+SHD .....63.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한다 ; 머리나 등은 씻어 주어야 하고 다른 부분도 도와 주지 않으면 잘 씻지 못한다 5.24

+ SHE .....64. 칼로 먹을 것을 잘라먹는다 5.62

+NO S .....65. 자기 차례나 규칙을 알고 목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앉아서 하는 게임을 한다 : 오목, 윷놀이, 모니, 다이아몬드 게임 같은 놀이를 한다 5.90

VI − VII

+NO S .....66. 특수한 기술이 없어도, 엄격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협동적인 집단 놀이나, 가정 또는 사회적 상황을 상상한 놀이를 한다 ; 빈터에서 공차기나 공치기, 개울에서 고기 잡기, 자전거 타기, 학교 놀이, 병원놀이, 상점 놀이 등을 한다 6.15

C .....67. 12개 이상의 쉬운 낱말을 연필로 정확하게 쓴다 6.19

SHG .....68. 시계를 대충 본다 ; 시계를 보고 학교 갈 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안다 6.32

SHD .....69. 손님이 올 때나 외출할 때에 머리를 빗거나 손질한다 6.64

VII − VIII

C .....70. 간단한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다 ; 만화 같은 쉽고 짧은 글을 읽는다 7.14

+ L .....71. 자기 동네에서는 혼자 또는 친구와 같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7.18

+SHE .....72. 무슨 음식이든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먹는다 ; 칼로 과일을 깎아 먹거나, 생선의 뼈를 가려내고 먹는다 7.19

+ SD .....73. 학용품 같은 간단한 물건을 산다 ;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산다. 산 물건을 안전하게 다룬다. 정확하게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는다 7.20

S .....74. 산타클로스나 귀신이나 도깨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 7.23

O .....75. 연장을 사용한다 ; 망치, 톱, 드라이버, 바늘, 호미 같은 연장을 사용한다 7.26

VIII − IX

+O .....76. 일상적인 간단한 집안 일을 한다 ; 먼지 털기, 정돈, 방을 쓸거나 닦기, 설거지 하기, 밥상을 차리거나 치우기, 이부자리 깔기 같은 일을 한다 7.54

+SHD .....77. 혼자서 목욕을 한다 ; 머리를 잘 감지 못해도 몸은 비교적 깨끗이 씻는다 .. 8.05

C .....78. 전화를 걸 줄 안다 8.07

IX −X

C .....79. 친구나 친척에게 짧막한 편지를 쓴다 8.61

SD .....80. 한 시간 이상 혼자서 집을 본다 ; 전화 받고, 방문객을 처리한다 9.13

X − XI

SHD .....81. 몸치장을 단정히 한다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머리를 감고, 손톱을 깎고, 때에 따라 적절한 옷을 선택하여 입는다 10.08

C .....82. 책, 신문, 잡지 등을 줄줄 읽는다 10.24

O .....83. 간단한 창의적인 일을 한다 ; 창작, 구성, 도안, 수예 같은 일을 한다 10.40

O .....84. 약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한다 ; 집안 심부름, 바느질, 신문 배달 같은 일을 한다 10.78

S .....85. 기술을 익히고 규칙과 특정 방법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복잡한 게임이나 스포츠를 한다 ; 야구, 농구, 축구, 테니스, 탁구, 화투, 장기 등을 한다. 10.80

XI − XIII

L .....86. 좀 먼 이웃 동네라도 혼자서 갔다 온다 11.65

C .....87. 광고를 보고 우편으로 주문한다 12.13

SD .....88. 낯선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나다닐 수 있다 ; 어디서나 행동을 조심한다 12.15

SD .....89. 자기가 가진 액세서리를 잘 선택하여 산다 ; 리본, 신발, 장갑, 스카프 같은 물건을 산다 12.75

XIII − XV

SD .....90. 자기가 가진 돈을 유용하게 쓴다 ; 돈을 쓸데와 안 쓸데를 가려 쓴다 13.04

C .....91. 필기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교한다 ;비교적 격식에 맞게 잘 쓴다 13.33

S .....92. 협동을 요하는 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클럽이나 운동경기 팀의 한 성원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13.63

C .....93. 시사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 뉴스, 스포츠, 화제거리 등에 계속 관심을 표시한다 13.69

O .....94. 일상적인 집안 일을 맡아 책임지고 한다 ; 빨래, 부엌일, 정원 가꾸기, 유리창 닦기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한다 14.05

XV − XVIII

SD .....95.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돌본다 ; 질병이나 사고를 적절히 예방하고, 가벼운 상처는 자기가 직접 처치하고, 필요할 땐 직접 전문의를 찾아간다 14.96

L .....96. 가 본 일이 없는 아주 먼 시골이나 도시에 혼자 갔다 올 수 있다 15.85

SD .....97. 자기 돈의 지출은 자기가 결정해서 한다 ; 많은 돈의 지출에 있어서 신중

(그림 3) 간편 척도 검사 (인물화 검사)

(18)

[redacted]	성 별: 남자(O)·여자( )
[redacted]	
검사실시일자: 20	
※ 생 년	(만 /4년 /개월)
※ 부모의	
※ 특 기 사 항:	

※표 난은 반드시 교사나 검사자가 기입해 주십시오.

점수기입란

	원점수	편차IQ	백분위	정신연령(MA)
남자상	1			
여자상	2			
평 균				
	검사지 P6, P7의 원점수임.	지침서 P64~86의 표준점수임.	지침서 P88의 환산표 참조.	검사지 P5, P8 참조만, 간편규준임.

- 2 -

지 시 (아동들에게 읽어준다)

※공동 지시

1. 반드시 연필로 그려야 됩니다.
2. 절대로 그림을 보고 그려서는 안됩니다.
3. 시간은 얼마든지 드립니다.

1. 학령전 및 초등학교 1학년용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 그림을 두장 그려 보겠어요. 이 편(4페이지를 펴보이면서)에는 남자를 그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나 오빠나 형을 생각해서 그리면 되지요? 그 다음 이쪽에는 (9페이지를 펴보이면서)여자를 그리세요. 어머니나 언니나 누나를 생각하고 그리면 되요. 그림 때 어느 한 곳만 그리지 말고 몸 전체를 그려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번 잘 그려 보세요.

2. 초등학교 2·3·4학년용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림을 두장 그릴터인데 4페이지(지적하면서)에는 남자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지적하면서)에는 여자를 그리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 보겠어요. 사람을 그릴 때 어느 한 곳만 그리지말고 사람 전체를 그리세요. 열심히 잘 그려 보세요.

3. 초등학교 5·6학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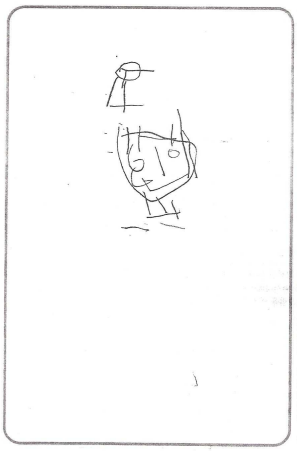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림을 두장 그리게 되어 있어요.
나누어 준 검사지를 펴서 4페이지에는 남자 그림을 그리고, 9페이지에는 여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남자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후에 여자 그림을 그리세요.
한 그림이 끝나면 곧 다음 그림을 그려서 두 장 다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려 보세요.

4. 정신 박약아용

이제부터 연필로 재미있는 그림공부를 해보겠어요.
여기는(4페이지를 펴보이면서) 아버지(아빠)를 그려요(혹은 형, 오빠, 아저씨 등 남자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9페이지를 펴보이면서) 어머니를 그려요(혹은 언니, 누나, 아주머니 등 여자에서) 생각나는 대로 열심히 그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잘 그려 보세요.

남자 그림

남자 그림은 여기에 그리세요.
사람전체를 그리세요.
열심히 그림시다.



채점난

1	O	31	
2	O	32	
3	O	33	
4	O	34	
5		35	
6		36	
7		37	
8		38	
9	O	39	
10		40	
11	O	41	
12		42	
13	\	43	
14		44	
15		45	
16		46	
17	O	47	
18		48	
19		49	
20		50	
21		51	
22		52	
23		53	
24		54	
25		55	
26		56	
27		57	
28		58	
29		59	
30		60	

원점수

채점시의 자르는 선

- 4 -

간 편 채 점 기 준 (숙련자만 사용)

여기에 지점 ○표로 ↓ 채점하세요.

(남자상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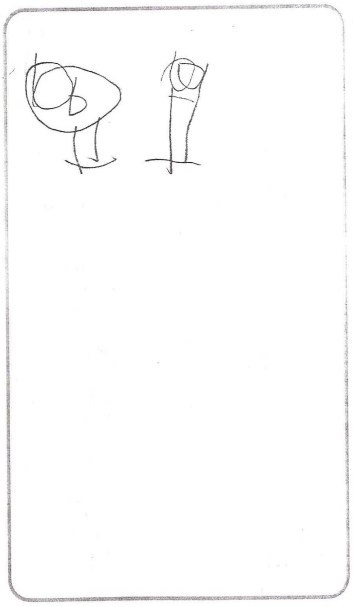
(○) 1. 머리(유무)
(○) 2. 목(유무)
(○) 3. 목 : 평면적 · 구별
(○) 4. 눈(형태유무)
( ) 5. 눈의 세부 : 눈썹
( ) 6. 눈의 세부 : 눈동자
( ) 7. 눈의 세부 : 비율
( ) 8. 눈의 세부 : 응시
(○) 9. 코(유무)
( ) 10. 코 : 평면적
(○) 11. 입(유무)
( ) 12. 입술(유무)
( ) 13. 턱과 이마(표시유무)
( ) 14. 턱의 돌출(형태)
( ) 15. 턱의 선(예각)
( ) 16. 웃남(표현)
(○) 17. 머리카락 Ⅰ(표시유무)
( ) 18. 머리카락 Ⅱ(뚜렷한 표시)
( ) 19. 머리카락 Ⅲ(스타일)
( ) 20. 귀(유무)
( ) 21. 귀 : 비율과 위치
( ) 22. 손가락(엄지만 분화된 그림은 안됨)
( ) 23. 정확한 수의 손가락
( ) 24. 손가락의 정확한 세부
( ) 25. 엄지 손가락의 분화
( ) 26. 손(분화된 표시)
( ) 27. 손목 또는 발목
( ) 28. 팔(유무)
( ) 29. 어깨 Ⅰ(목과 동체에서 분화)
( ) 30. 어깨 Ⅱ(형태)

원점수	

( ) 31. 옆으로 내리거나 운동하고 있는 팔
( ) 32. 다리(유무)
( ) 33. 엉덩이 Ⅰ(가랑이)
( ) 34. 엉덩이 Ⅱ(세련된 그림)
( ) 35. 무릎 관절(표시유무)
( ) 36. 발 Ⅰ(유무)
( ) 37. 발 Ⅱ : 비율 1/3〉발1〉/10
( ) 38. 발 Ⅲ : 뒷꿈치
( ) 39. 발 Ⅳ : 원근법
( ) 40. 팔다리의 부착 Ⅰ(동체에)
( ) 41. 팔다리의 부착 Ⅱ(정확한 위치)
( ) 42. 동체(명확한 표시)
( ) 43. 동체의 비율 :평면적, 가로〈세로
( ) 44. 비율 : 머리와 동체, 1/10(머리①/2
( ) 45. 비율 : 얼굴, 세로〉가로
( ) 46. 비율 : 팔과 동체, 동체=팔
( ) 47. 비율 : 팔은 어깨폭보다 손목폭이 차차 가늘어짐
( ) 48. 다리와 동체 : 2배 이상은 안됨
( ) 49. 비율 : 팔 · 다리〉손 · 발
( ) 50. 옷Ⅰ(손목 발목에서 단순한 횡선도 가)
( ) 51. 옷Ⅱ : 두 종류의 옷
( ) 52. 옷Ⅲ : 투명하지 않아야 한다
( ) 53. 옷Ⅳ : 4종류의 옷
( ) 54. 측면화(머리 · 동체 · 다리)
( ) 55. 운동 조정 : 선과 연결
( ) 56. 세련된 선과 형태 : 머리 윤곽
( ) 57. 세련된 선과 형태 : 동체
( ) 58. 세련된 선과 형태 : 얼굴의 모양
( ) 59. sketch 및 실제감 표현의 기술
( ) 60. 팔과 다리의 운동

여자 그림

여자 그림은 여기에 그리세요.
사람 전체를 그려야 합니다.
아주 잘 그려 보세요.



채점난

1 ○	31 ___
2 ○	32 ___
3 ___	33 ___
4 ___	34 ___
5 ___	35 ___
6 ___	36 ___
7 ___	37 ___
8 ___	38 ___
9 ___	39 ___
10 ○	40 ___
11 ___	41 ___
12 ___	42 ___
13 ___	43 ___
14 ___	44 ___
15 ___	45 ___
16 ___	46 ___
17 ___	47 ___
18 ___	48 ___
19 ___	49 ___
20 ___	50 ___
21 ___	51 ___
22 ___	52 ___
23 ___	53 ___
24 ___	54 ___
25 ___	55 ___
26 ___	56 ___
27 ___	57 ___
28 ___	58 ___
29 ___	59 ___
30 ___	60 ___

원점수 ___

여기에 직접 ○표로 ↓ 채점하세요.

(여자상 척도)

(○) 1. 머리(유무)
(○) 2. 목(유무)
( ) 3. 목 : 평면적 · 구별
( ) 4. 눈(형태유무)
( ) 5. 눈의 세부 : 눈썹
( ) 6. 눈의 세부 : 눈동자
( ) 7. 눈의 세부 : 비율
( ) 8. 뺨(묘사의 시도)
( ) 9. 코(유무)
(○) 10. 코 : 평면적
( ) 11. 콧날(표현)
( ) 12. 콧구멍(표현시도)
( ) 13. 입(유무)
( ) 14. 입술 : 평면적
( ) 15. 확장한 입술(윤곽)
( ) 16. 턱과 이마(측면도 됨)
( ) 17. 턱의 선(측면도 됨 예각)
( ) 18. 머리카락 Ⅰ(표시유무)
( ) 19. 머리카락 Ⅱ(윤곽에 부합)
( ) 20. 머리카락 Ⅲ(스타일)
( ) 21. 팔(유무)
( ) 22. 어깨(동근모양)
( ) 23. 옆으로 내리거나 운동하고 있는 팔
( ) 24. 손가락(엄지만 분화된 그림은 안됨)
( ) 25. 정확한 수의 손가락
( ) 26. 손가락의 정확한 세부
( ) 27. 엄지 손가락의 분화
( ) 28. 손(분화된 표시)
( ) 29. 다리(표시 유무)
( ) 30. 엉덩이(각을 이룬것)
( ) 31. 발 Ⅰ(유무)
( ) 32. 발 Ⅱ : 비율
( ) 33. 발 Ⅲ : 세부
( ) 34. 신발 Ⅰ : 여성적
( ) 35. 그림에 적합한 발의 방향
( ) 36. 팔다리의 부착 Ⅰ(동체)
( ) 37. 팔다리의 부착 Ⅱ(정확한 위치)
( ) 38. 옷(단추 · 주머니 등)
( ) 39. 소매 Ⅰ(횡선정도)
( ) 40. 소매 Ⅱ(묘사)
( ) 41. 목둘레 선 Ⅰ(옷의 선)
( ) 42. 목둘레 선 Ⅱ(칼라 · V형)
( ) 43. 허리 Ⅰ(표시유무)
( ) 44. 허리 Ⅱ(묘사)
( ) 45. 주름이나 옷감을 묘사한 치마
( ) 46. 옷을 통해 비쳐 보이지 않는 점
( ) 47. 여성적인 옷
( ) 48. 완전히 조화를 이룬 의상
( ) 49. 동체(표시유무)
( ) 50. 동체의 비율 : 평면적, 세로〉가로
( ) 51. 머리와 동체의 비율 : 1/4〉머리〉1/8
( ) 52. 머리 : 비율 세로〉가로
( ) 53. 팔다리 : 비율 길이〉폭
( ) 54. 팔과 동체의 비율 : 팔〉허리까지
( ) 55. 허리의 위치(전신의 1/3)
( ) 56. 복장의 영역
( ) 57. 운동 조정 : 선과 연결
( ) 58. 세련된 선과 형태 : 머리
( ) 59. 세련된 선과 형태 : 가슴
( ) 60. 세련된 선과 형태 : 얼굴의 모양

원점수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학 번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주 소					
연락처	E-MAIL:				
논문제목	한글 : 영문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